

지봉유설 (芝峰類說)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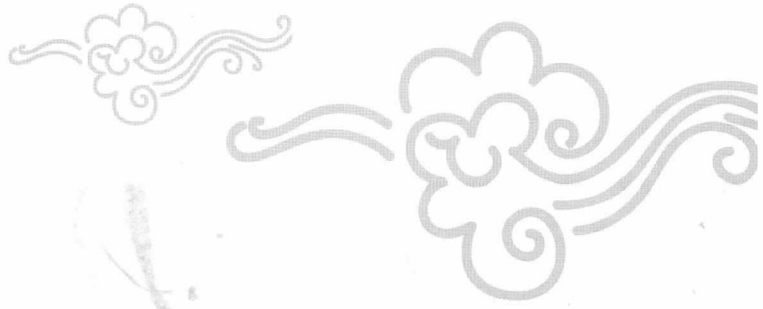
주(酒)

옛사람의 말에, '한 고을의 정치는 술에서 보고, 한 집의 일은 양념 맛에서 본다' 고 했다. 대개 이 두 가지가 좋으면 그 밖의 일은 자연 알 수가 있다는 말이다.

〈이아(爾雅)〉에 보면, '술에는 범제(泛齊)·부의(浮蟻)가 있다' 고 했다. 그래서 후세 사람들이 술을 가리켜 춘의(春蟻)니 녹의(綠蟻)니 한다. 〈주례(周禮)〉 범제(泛齊) 주(註)에 보면, '범(泛)이란 익어서 범범(泛)하고 찌꺼기가 말갱게 되기를 기다려 술지게미를 조금 띄운 것을 부의주(浮蟻酒)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것이다.

한(漢)나라에서 승상에게 좋은 술을 하사했다고 하는 주에 보면, '술에는 찹쌀을 제일 상으로 치고, 피(稷)를 중으로 조(粟)를 제일 하로 친다' 라고 했다. 〈동월(董越)의 조선부(朝鮮賦)에 보면, '술을 빚는 데는 멥쌀을 가지고 하고 차조를 쓰지 않는다. 아무리 다른 좋은 술이 있더라도 이 술과 우열을 따질 수는 거의 없을 것이다' 라고 하였다. 〈본초(本草)〉에는, '출미(秫米)를 누른 쌀이라고 하는데 이것으로 술을 빚으면 가장 맛이 좋다' 고 했다. 〈오학편(五學編)〉에는, '조선에서는 멥쌀로 술을 빚는다' 라고 했다. 이것으로 본다면 멥쌀을 가지고 술을 만드는 것은 오직 우리나라뿐인 듯하다. 봄술을 의방(醫方)에서는 미주(美酒)라고 한다. 아마도 이것은 지금의 삼해주(三亥酒: 음력 정월의 해일(亥日)에 빚은 술)따위인 듯 싶다. 상고하건대 〈창려집(昌黎集)〉주에 말하기를, '시(詩)에 이 봄술을 만드다(爲此春酒)라고 한 귀절이 있다' 라고 했다. 이것을 후세 사람들은 술 이름이라고 해서 국미춘(麴米春)·나부춘(羅浮春)·연각춘(軟脚春)·옥굴춘(玉窟春)등이라고 하니 이루 셀 수가 없다.

술에 취하면 천 일(千日)만에 깨는 것이 있으니, 중산주(中山酒)이다. 또 취한 지 열흘 만에 깨는 것이 있으니, 구루국(枸樓國)의 선장주(仙漿酒)이다.



〈식감본초〉에 말하기를, '술의 독은 이빨이 먼저 받는다. 술을 한 잔 마시고 곧 물을 머금어 씻으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근래에 이상국 양원이 한평생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양에 차면 곧 그쳤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곧 냉수 한 잔으로 씻어 넘겼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술에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마시고 나서 천리 길을 가면 비로소 취하는 술은 계양(桂陽) 정향주(程鄉酒)이다. 또 여러 해가 되어 도 상하지 않는 술은 서역(西域)의 포도주(葡萄酒)와 일본주(日本酒)이다. 금시에 만들어지는 술은 준순주(浚巡酒)이다.

서역(西域)에는 포도주가 있고, 가릉(詞陵)에는 야자주(椰子酒)가 있다. 오손(烏孫)에는 청전핵주(靑田核酒)가 있고, 파사(波斯)에는 육즙주(肉汁酒)가 있다. 북로(北虜)에는 마동주(馬潼酒), 남만(南蠻)에는 빈랑주(檳榔酒), 부남안(扶南安)에는 석류주(石榴酒)·감자주(甘蔗酒)가 있다. 또 진랍(眞臘)의 미인주(美人酒)는 아름다운 여인이 입 속에 넣고 만드는데, 하룻밤 동안에 만들어진다. 〈오학편(吾學編)〉에 말하기를, '유구국(琉球國)의 부인이 쌀을 씹어서 술을 만든다'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또 〈식감본초(食鑑本草)〉에 보면 '섬라(暹羅)의 소주는 한두 잔만 마시면 목은 병이 모두 낫는다'라고 했다. 왕감주(王弼州)는 말하기를, '지금 사이(四夷)의 술 중에서는 섬라(暹羅)의 술을 제일로 친다'라고 했다.

〈식감본초(食鑑本草)〉에 말하기를, '술의 독은 이빨이 먼저 받는다. 술을 한 잔 마시고 곧 물을 머금어 씻으면 취하지 않는다'라고 했다. 근래에 이상국(李相國) 양원(陽元)이 한평생 술 마시기를 좋아했다. 그러나 양에 차면 곧 그쳤다. 그리고 소주 한 잔을 마시고 나면 곧 냉수 한 잔으로 씻어 넘겼다. 그렇게 하기 때문에 술에 상하지 않았다고 한다.

소동파(蘇東坡)의 〈계주송인(桂酒頌引)〉에 보면, '술은 천록(天祿)이다. 술이 잘되고 못되는 것이나, 맛이 좋고 나쁜 것으로써 그 집 주인의 길하라고 흉한 것을 점칠 수가 있다'라고 하였다.

지금 풍속에, 술맛이 시고 나쁜 집에는 액운이 있다고 한다. 그 말은 대개 이런 테에서 근본한 것이다.

술맛이 오랫동안 변치 않는 것이 있다. 듣건대 백 년 된 옛 무덤을 파고 보니 광중(曠中)속에 술 한 항아리가 들어 있었다. 그 술은 기운이 몹시 독하고 또한 그릇에 가득하여 조금도 줄어든 흔적이 없었다. 일하던 사람들이 각각 한 잔씩 마셨더니 모두 취했다고 하니 괴상한 일이다.



소주는 원(元)나라 때에 생긴 술인데, 오직 이것은 약으로만 쓸 뿐이지 함부로 먹지는 않았다. 그런 때문에 풍속에, 작은 잔을 가지고 소주잔이라고 했다. 근세에 와서는 사대부들이 호사스러워 마음대로 마신다. 여름이면 소주를 큰 잔으로 많이 마신다. 그리하여 잔뜩 취해야만 그만두니 그래서 갑자기 죽는 자들도 많다.

명묘조(明廟朝) 때 김치운(金致雲)은 교리(校理)로서 홍문관(弘文館)에서 수직을 하다가 임금이 내린 자소주(紫燒酒)를 지나치게 마시어 그 자리에서 죽었으니, 소주의 해독은 참혹한 것이다.

술의 독이란 또한 심한 것이다. 평시에 내섬사(內贖寺)에는 술을 만드는 방이 있다. 그 방 위에 덮은 기와는 쉽게 상해서 몇 해 만에 한 번씩 바뀌야 했다. 그리고 그 위에는 까마귀나 참새떼가 모여들지 않는다. 이것은 술 기운이 서려 있는 때문이다.

내가 보기에, 세상 사람으로서 함부로 술을 마시던 사람치고 일찍 죽지 않은 자가 드물다. 또 죽지 않는다고 해도 역시 병으로 폐인이 된다. 또 그 밖에도 화를 불러 자기 몸을 망치는 자는 이루 셀 수가 없다. 혹은 말하기를, 술이 사람을 상하는 것이 여색(女色)보다도 더 심하다고 하니 그 말은 진실로 그러하다.

〈의방(醫方)〉에 보면, ‘모든 중독 중에도 술에 중독된 것은 고치기가 힘들다고 한다. 술기운이 모든 혈맥에 통하여 온몸에 퍼지기 때문이다. 그리고 다른 음식에 중독된 것은 고치기가 쉽다. 먹는 것이나 약은 다만 위에 들어가서 혹은 대변으로 나와서 그 독기를 없앨 수도 있어서, 혈맥으로 흘러 들어가지는 못하기 때문에 이렇게 말하는 것이다’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모든 독을 푸는 약즙은 모두 데워서 먹어서는 안된다. 이렇게 하면 그 독기가 더욱 심해지기가 쉽다. 그러니 마땅히 차게 해서 먹어야만 효력이 있다’ 라고 했다. 이 말도 알아두어야 할 것이다.

〈소설(小說)〉에 말하기를, ‘사람이 소주를 지나치게 많이 마시고 불 가까이 가면, 입 속에서 불이 나온다. 여기에 물을 마시면 그 불길이 더욱 타올라서 타버린 다음에야 그치게 된다. 그러니 여기에는 오직 오래 된 식초를 써야만 불기운이 꺼진다’ 라고 했다.

〈수양서(壽養書)〉에 말하기를, ‘소주를 마시고 취해서 깨어나지 못하는 자에게는 급히 녹두가루를 끓여서 젓가락으로 이빨을 벌리고 찬 것을 흘려 넣으면 곧 깨어난다’ 라고 했다.

〈본초(本草)〉에 보면, ‘말고기를 먹고, 중독되었을 때는 청주(淸酒)를 마시면 곧 독이 풀리지만, 탁주를 마시면 더해진다’ 라고 했다. 또 말하기를, ‘말의 간에는 독이 있어서 이것을 먹으면 사람이 상한다’ 라고 했다.

진나라 목공(穆公)이 말하기를, ‘좋은 말고기를 먹어도 술을 마시지 않으면 사람이 상한다’ 고 한 것이 이것이다. 그렇다면 〈한서(漢書)〉에, 문성(文成)이 말의 간을 먹고 죽었다는 것도 역시 이를 말한 것인가.

〈양생기요(養生紀要)〉에 보면, ‘날이 저물 무렵에 너무 취하지 말라’ 라고 했다. 또 ‘두세 번 연거푸 밤술에 취하지 말라’ 라고도 했다. 이것은 대개 술의 독이 한데 머물러 모여 있어서 사람의 창자를 해치는 것을 두려워해서 하는 말이다. 지금 사람들은 손님을 모아다가 잔치하고 마시는 것을 반드시 늦은 밤으로 한다. 그런 때문에 속담에, ‘유시(酉時)에 잔치에 나간다’ 라고 한다. 그러나 이렇게 늦게 술을 마시면 사람을 상하는 것이 반드시 심하다.

또 〈산거사요(山居四要)〉에는 말하기를, ‘그믐날에는 크게 취하지 말라’ 라고 하였고, 〈연수서(延壽書)〉에는 말하기를, ‘그믐날에 노래를 부르면 흉한 일을 불러 온다’ 라고 하였다. 그러니 이 말도 잔치하고 놀지 말라는 뜻임을 알 것이다.

유일(酉日)에는 객을 모으지 않는다. 상고하건대 〈사문유취(事文類聚)〉에 보면, ‘두강(杜康)은 술을 잘 만들더니 유일(酉日)에 죽었다. 그런 까닭에 이 날에는 손을 모아놓고 술을 마시지 않는다’ 라고 했다. 나는 생각하기에 이 말은 옳지 않은 것 같다. 주(酒)란 글자는 유(酉)변에 쓰는 것이니 이것은 아마 스스로 깊은 뜻이 있는 것일 것이다. 도연명(陶淵明)의 술주시(述酒詩)의 주(酒)에 말하기를, ‘의적(儀狄)은 술을 만들었고, 두강(杜康)은 술에 빛깔을 냈다’ 라고 했다. 세본(世本)에는 또 소강(少康)이 술을 만들었다고 했었고, 또 혹은 두강은 출주(秫酒)를 만들었다고 했다. 〈설문(說文)〉에 말하기를, ‘소강(少康)의 이름을 혹은 두강(杜康)이라고도 한다’ 라고 했다. 옛날에 우정국(于定國)은 술을 몇 섬을 마셔도 취하지 않았다. 정강성(鄭康成)은 한 곳(斛)을 마시고, 여식(廡植)·주의(周顛)·유영(劉伶)은 모두 한 섬씩을 마셨다고 한다.

상고하건대 〈주보(酒譜)〉에 보면 수나라 때 새로 도량(度量)을 제정해서 말(斗)이나 섬(石)의 분량이 배로 커졌다. 그런 까닭에 당나라 이후로는 술 마시는 양이 이와 같은 자가 없었다.



〈오행지(五行志)〉에 보면, '진(晉)나라 혜제(惠帝) 원강연중(元康年中)에 귀족의 자제들은 머리를 푸는 모임을 가지고 종과 첩들을 데리고 놀았다. 이것을 거역하는 자는 의리를 상하고, 이것을 하지 않는 자는 남에게 조롱을 받는다. 그러나 이 모임의 끝이란 말이 아니었다' 라고 하였다.

상고하건대 유영·필탁(畢卓)은 발가벗고 앉아서 술을 마셨고, 주의(周顛)는 술에 취해서 기침(紀瞻)의 종을 간통하려 하여 그 추태를 보였다고 하니 모두 그런 말들이다.

장적(張籍)의 시에 말하기를, '술을 빛는 데는 마른 반죽으로 빛는 것이 좋다.' 고 했다. 상고하건대 〈주보(酒譜)〉에 말하기를, '이것은 지금 사람들이 물을 붓지 않고 만드는 술이다. 병주(併州)와 분주(汾州) 땅에서는 이것을 맛좋은 술이라 하여 이름을 건작주(乾酢酒)라고 한다' 라고 했다. 또 술의 좋은 것으로는 검남(劍南)의 소춘(燒春), 하동(河東)의 건화(乾和), 의성(宜城)의 구온(九醞) 등이 있다고 한다. 지금 우리나라에서는 삭주(朔州)의 술이 가장 이름이 있다. 또 중국 사람은 술을 빛는데 재를 많이 넣는다. 그런 때문에 의방에선 무회주(無灰酒)가 약에 들어간다. 육방옹(陸放翁)이 말하기를, '당나라 사람은 적주회(赤酒灰)를 좋아한다' 라고 했다.

육노망(陸魯望)의 시에, '술이 재에 떨어지는 향기 지난 해와 같네' 라고 한 것이 이것이다. 송나라 진중(眞宗)이, '당나라 때는 술값이 어떠했느냐' 하고 묻자, 좌우 사람들이 이에 대답하는 자가 없었다. 정위(丁謂)가 앞으로 나와 말하기를, '당나라 술은 한 말에 삼백 냥씩 했습니다. 두보의 시에 속히 와서 서로 나가 술 한 말을 마시니, 그 값 청동전 3백 냥일세라고 한 것으로 알 수 있습니다' 하니, 진중(杜康)이 크게 기뻐했다 한다.

나는 생각하기에, 왕유(王維)의 시에, '신풍(新豐)의 좋은 술, 한 말에 십천냥일세(新豐美酒斗十千)라고 했고, 또 최국보(崔國輔)의 시에, '홍치 있게 한 말 술에 취하니 흡족히 돈 십천 냥을 썼네' 라고 해서 모두 두시(杜詩)와는 다르다. 그런데 여기에서는 오직 두시만을 말하고 이들의 시는 말하지 않았으니 무슨 까닭인가. 옛 사람들도 시를 넓게 아는 자가 역시 드물었던 것이다.